

# 전남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 민관 합동 시설물·소방·가스설비 관리·보험 가입 등 집중 점검

전남도가 올해 전국체전 등 4대 국제행사와 전남 방문의 해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23일 강진 정자촌 일원에서 개막한 제51회 강진 정자축제를 시작으로 다수가 모이는 지역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세부 점검사항은 ▲축제장 관람객(동시 최대) 수용 인원의 적정성,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및 대응 방안 ▲축제 계획 및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구조·구급 등 축제장 안전관리대책 ▲축제장 비상 대피로 확보, 질서 유지 등 교통대책 ▲안전사

고 발생 시 조치계획 등이다.

특히 축제 개최 1~2일 전에는 축제장 민간 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계획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축제장 내외 시설물과 소방·전기·가스설비 관리, 보험 가입 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한 시설 보강이 필요하거나 안전이 미흡한 사항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법·불안 요인은 축제 개최 전에 반드시 보수·보강하도록 해 안전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는 매달 대규모·고위험 지역 축제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축제장 안전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밖에 각 시·군에 지역 축제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통해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 운집 행사를 매일 전수 조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장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철저히 안전점검해 안전사고 없는 축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본격 활동

### 내일 동구 청소년수련관 창립총회

민주당 개혁운동을 위해 출범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이하 정치개혁연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청소년수련관 3층 다목적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치개혁연대는 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조직체계 정비, 당원 중심의 민주당 혁신, 정치교체를 통한 정치혁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호남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정치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 개혁을 목표로 정치단체가 결성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정당 활동과 선거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개혁연대 신하봉 사무총장은 "민주당 내 개혁운동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과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필요한 지역 아젠다와 추진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적 과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나가며, 지속적인 정치학교를 통해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정치혁신 플랫폼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개혁연대는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민주당이 지역민의 정치적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겼으며 지난해 8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발기인대회(대표 하운성)를 개최하고 민주당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피 훈련, 어린이도 예외 없어요"

최근 각종 화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안전 농산물 3000여상자 복지시설 지원

###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 농약 검사 통과한 농산물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다.

23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산하 서부·북부 농수산물검사소는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420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상시 검사하고 있다.

검사소는 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3000여 상자를 복구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지원한다. 농산물 지원은 서부 농수산물검사소가 문을 연 2011년부터 이어져 2020년 각화 농산물 검사소도 개소하면서 물량이 대폭 늘었다.

조배식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물가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안전한 농산물 나눔이 지역 공동체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선관위 박병태 위원장 선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병태 광주지법위원장을 제30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광주지법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다음달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



조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 참조기·오징어 근해자망 총허용어획량 개선방안 논의

### 전남도 현장간담회... "한중일 공동어업관리기구 설립 필요" 의견

전남도는 23일 여수 근해유망수협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참조기와 오징어를 주로 잡는 근해자망 총허용어획량(TAC)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참돔어, 오징어 등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그 범위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로, 전남도 총허용어획량 배정량은 총 4만 8000 t(전국 45만 t의 11%)다. 시·군별로

여수 2만 6000 t(54%), 목포 1만 5000 t(32%)이며 주요 어종별로는 참조기 2만 3000 t, 갈치 1만 t, 오징어 7000 t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근해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총허용어획량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 ▲총허용어획량 관련 중앙 정책 방향 ▲한·중·일 공동어업관리기구 신설 ▲총허용어획량 기반 규제 완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임태봉 여수근해자망협회장은 "참조기와 오징어 등 희유성 어종에 대한 한중일 3개국 공동이용 자원량 조사를 위한 공동어업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업 기술, 장비 발달, 어선 현대화로 점점 수산자원 관리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직접적으로 어업 생산량을 제한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어획량 규제인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총허용어획량 전담반(T/F)을 운영, 문제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음 기자 dok2000@

# 전남도, 목포서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숍'

전남도는 23일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2023년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을 열고 코로나 엔데믹 시대 지역별 보건 증진을 위한 '2023년 보건정책 추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건강 증진, 감염병 관리, 의료 관리 분야 확대 강화로 도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건강 증진 분야의 경우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섬 주민 진료 병행선 2척 건조, 의료 취약지 지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공유했다.

특히 건강지킴이서비스 2대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등

·서부권역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 치매 종합관리대책을 세워 시행키로 했다.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는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 결핵예방관리사업 강화로 조기 검진과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증 예방과 사망률 감소에 주력키로 했다.

의약관리 분야로는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교육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의 마음 치유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학부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19
	한국어교육학과	1
	복지상담융합학부	7
사범	유아교육과	2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2. 20(월) ~ 24(금)
- 전 형 일: 2023. 2. 25(토) 오전 10시

###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사회복지학과(D.S.W.)	○
		코칭심리학과(D.Psy.)	○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2. 21(화) ~ 23(목)
- 전 형 일: 2023. 2. 24(금)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